

부산종친회 회장단 및 운영위원회 회의개최



△부산 연산동소재 해암취폐에서 부산종친회 회장단 및 운영위원회의에서 결사항정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釜山宗親會(會長 權吉相)는 지난 7월2일 저녁 연산동 소재 해암취폐에서 權哲賢, 權永漢, 顧明 등 100여명의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이 구성된 임원 회의를 개최했다.

權永漢 顧明, 權景旭을 비롯한 자문위원 權載穆, 名譽會長, 權重元, 首席副會長, 權聖容, 副會長 등 유임 임원 및 權石峰 副會長 등 신임 임원 소개에 이어 權吉相 會長的 인사에서 지난 5월 26일 성황리에 개최된 제37차 정기총회에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드리고 유임, 신임 임원들의 수임에 감사드리며 또한 지난 총회 시 전형위원회에서 연임결정된 회장 임기를 잘 마칠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며 아울러 임원들의 지도편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서 權哲賢 顧明의 權門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격려 후에, 權載穆 事務局長의 제37차 정기총회 경과보고에 이어 20여년의 오로지 權門을 위해 봉사해온 그간의 노고에 대한 감사한 임원들의 박수갈채와 꽃다발을 한아름 안은 權載穆 事務局長의 영예로운 퇴임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 하고 權容燮 新任 事務局長에 대한 選任狀이 전달되었다.

이어서 장학생 선발 및 상벌심의 위원회 구성과 각 부서 역할 사무분담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새 집행부의 틀을 마련한 후 만찬으로 축의를 더욱 두텁게 했다.

〈권용섭 사무국장〉

안동시청 청무회 야유회

안동시청청무회(회장 권기억)는 지난 6월 29일 오전 8시, 회원 50여명이 관공버스편으로 '영덕 볼투루'에서 야유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오전 9시 30분의 현지에 도착해 함께 50여명이 '자전거길'을 걸었으며 이어 '이동회관'에서 오를을 한 후, 주산지를 거쳐 자연탐방, 휴식후 귀로에 올랐으며, 차중에서 권기억 회장의



△안동청무회 회원들이 '영덕볼투루'에서 단체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사말에 이어 권석순부회장의 인사와 권용대 총무의 공지사항이 있었다. 청무회는 매년 야유회를 가지면서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권혁세 기자>

동정



▲국정원국조특위 권성동새누리당 간사는 지난 17일 국회정론관에서 특히 운영에 대한 간사 합의 사항을 취재진에 발표했다.



▲현대오일뱅크 권오갑 사장은 17일 롯데그룹, 케이칼(이인원 부회장이) 손잡고 1조원대의 석유화학 원료 합작사업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권오원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30일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산시성 시안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건설현장을 방문했을때 공장건설 위치도가 설치된 곳까지 이동, 건설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했다.



▲(주)뱅뱅어패럴은 권성운(51) DCTV 대표가 10일 신입사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권사장은 뱅뱅어패럴 기획조정실장, 리틀뱅뱅, 에드윈 상무를 역임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대통령 문화융성위원회(한옥사랑) 위원에 소설가 권지예씨를 임명했다.



▲지난 24일 CBS는 제 26대 재단이사장에 구호단체 월드비전 강원지역 대표와 (사)아름다운 청소년들 대표이사, 춘천 중앙감리교회 목사(65) 권오씨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주와의 K리그 클래식 19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인천 골키퍼 권정형(35)이 국내 프로축구 역대 최장거리(85m) 골 기록을 세웠다.

서울 청장년회 월례회



권혁창(서울청장년회장)은 지난 7월 4일 19시에 서초구 서초동 강남역점 식당에서 권영상 고문 및 권혁용 직전회장을 비롯 회원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월례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 진행은 순용 사무국장의 사회로 시조님 광배에 이어 영상 고문의 격려사로 "오늘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뵈게 되니 반갑다"며 인사하였다.

이어 혁용 회장이 만찬에 앞서 축배 제의로 "우리는 하나다"라고 다같이 함께 축배잔을 기울였다. 모처럼 만난 회원들은 화기애애한 분

위기속에서 혁창 회장의 담담인사로 "오늘 참석해 주신 원로 영상 고문님, 그리고 혁용 전임회장을 비롯 회원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우리 서울 청장년회가 권문(權門)의 화합과 단합에 주축이 되어 앞장 서 가자"며 인사하였다.

이어 신임회원 소개로 영일(현현)이아자동차 마포지점과장)회원의 안내로 권기동(67), 부정공과, 30세(현여의도 유휴증권상무)회원의 소개 및 인사하였다. 끝으로 순용 사무국장의 공지사항으로 다음 월례회 안내로 9월경에는 한국 연예인 한마음회 회장 권성희 가수를 특별초청과 내년도 안동권씨청장년 전국체육대회 주최 회장기 대전청장년 회장 등을 초청하여 권문(權門)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참석을 요청하여, 회원들로부터 힘찬 격려 박수로 산회(散會)하였다.

〈권범준 홍보부장〉

안동남후종친회 정기총회

새 회장에 권용호씨 선출

안동남후종친회는 지난 4월 11일 오전 11시, 안동 남후면 무릉유원지에서 남여족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권재두 총무의 사회로 상례행사 이어 권재주 안동종친회장, 인찬 부회장, 권박사무국장 등 내빈소개가 있었으며, 이어서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권재주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감사보고후 총무의 경과, 결산



권용호 회장

보고가 있었다. 임원 선출에 들어가 권용호씨가 새 회장으로 선출되어 신임인사가 있었으며 기타토의로 회의를 마치고 오찬 후 단체로 기념촬영을 했다.

〈권혁세 기자〉

운곡서원지 雲谷書院誌

《지난호에 이어》

2. 운곡서원 연혁(雲谷書院沿革)

이러한 독려에 따라 각처에서 경주의 본소로 답통이 답지하였다.

창원(昌原)의 진전(鎭田) 문중에서는 권홍래(權鴻來) 등 14명의 명의로 답통을 보내 '마땅히 추원사(追遠祠)로 달려가 배알해야겠으나 도로가 멀어 미처 멀리까지 가는 정성을 드리지 못하니 부끄러운 탄식을 누를 길이 없습니다.

저희는 마침 공평한 형편에 처하여 보내 올리는 물건이 심히 박(薄)하여 더욱 부끄러운 한탄을 이기지 못하겠다'고 하였다.

의령(宜寧) 문중에서는 권이중(權以中) 등 9명의 명의로 치하하는 답통과 함께 '저희는 이곳에 거주하는 자가 본디부터 얼마 되지 않는데 다 근년 이래 하나 같이 모두 잔패(殘敗)하여 그 일을 도울 수가 없고 또한 일제히 나이가 일을 같이 하지 못하면서 다만 한 사람을 보내 책임을 막하니 더욱 개연스러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빈한(貧寒)한 족중(族中)에서 대강 소략하게 겨우 모아 이렇게 사소하나 우러러 올리오니 만약 헤아려 용서하심을 입는다면 심히 좋겠다'고 하였다.

영천(永川)의 권천서원(權川書院 : 충의공 권운수를 제향한다)에서도 원장(院長) 정대응(丁台應)과 재유사(齋有司) 조윤지(曹允履)·권사역(權師億)의 이름으로 답통을 보내 '본원(本院)의 기세(氣勢)가 하나로 비석을 세우고 비각(碑閣)을 짓는

일에 매였기 때문에 조잔(凋殘)함이 심한 형편이라 경영하는 사역(事役)도 계획대로 이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1백 일 동전으로 염치를 잊고 받들어 올리오니 허물함을 그치시고 웃으며 받으신다면 심히 기쁘겠다'고 하고 있다.

용궁(龍宮)의 기천서원(箕川書院)에서는 전만채(全萬采)·이천섭(李天燮)·정필각(鄭必玆) 등 33명의 명의로 안동의 능동재사로 통문을 보내 '도내(道內) 여러 종족(宗族)이 또한 송보당(崇報堂)의 회의에서 일제히 공편된 의논을 발하여 태사공의 후손인 죽림(竹林) 권선해와 귀봉(龜峯) 권덕린 두 선생을 거기에 시배(侍配)키로 하였다니 심히 성대한 예이고 아름다운 일'이라 하였다.

그러하여 용궁 기천서원의 통문에서는 이를 특히 환영하면서 '그 예이 헤아리건대 죽림선생은 곧 저희 고향의 선배로서 병자년의 일(世)에 그와 같았으며 죽음은 육신(六臣)과 같았으며 죽음은 육신과 같이 하지 않았지만 그 곧은 충성과 큰 절개는 백세토록 존상(尊尙)할 바인 것입니다.

저희는 선생의 고향에 태어나 선생의 절개를 경앙(景仰)하고 선생의 기풍을 전제 받아 익히면서 매양 사당을 지어 제사할 것을 본떠 의논하면서도 이루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번 여러 존장(尊長)께서 수백 년 동안 업두를 내지 못했던 거사를 이 처럼 일시에 흠양(欽仰)할 일로 우

울산 합월·무릉친목회 합동야유회



△울산 합월, 무릉친목회 합동야유회 명골마을 기념비 앞에서

지난 6월 23일 안동권씨 울산 합월/무릉 친목회는 권오장 합월친목회 회장, 권세균 무릉친목회장을 비롯한 양친목회원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 남해안 명골 마을에 합동야유회를 다녀왔다.

무릉친목회 권오장 총무의 사회로 출정식이 시작되었으며 양 친목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매년 합동으로 행사를 추진해 오는데 변함없이 합동 야유회를 통하여 더욱더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를 더욱더 돈독히 하고 울산에서 으뎌이 되고 가장 모범이 되는 친목회로 거듭나기를 당부하였다. 제일먼저 전남에 위치한 정남진 편백숲 관광을 시작으로 명골마을에 전망대를 둘러보고, 마지막 코스로 케이ابل카로 두륜산 고계봉정상까지 경관을 둘러보았다. 장시간 여행을 하면서 피곤함도 뒤로 한 채 양친목회원은 이번 야유회를 통하여 더욱더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의학정보

권오상 서울대의대 교수팀 탈모치료에 획기적 발견

권오상 서울대의대 교수팀이 대머리 모낭생성 물질을 찾아 탈모 치료에 획기적 발견을 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머리카락을 만드는 모낭(머리카락 뿌리를 싸고 있는 주머니)은 엄마 배 속에서 한번 만들어지면 끝이다. 나이가 들면서 모낭은 줄어들는데 추가로 생성되지 않으니 대머리가 되거나 머리카락이 줄 수밖에 없다. 인간의 모낭은 약 10만개로, 태아가 7개월 정도 됐을때 완성된다.

한·미(韓·美)연구진이 동물

실험에서 모낭을 늘릴 수 있는 물질을 찾아내 기능을 확인했다. 권오상 서울대 의대 피부과 교수팀 등은 'FGF9' 단백질이 모낭을 만든다는 사실을 생쥐 실험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으며 탈모증 치료 가능성이 열렸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사람의 신체에도 'FGF9' 단백질이 있다"며 이번 연구로 "FGF9 단백질을 활용해 탈모증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2013. 6. 4 조선일보 인용)

과 거경(巨卿)이 대를 빛내며 서로 이어 나와 다 기록할 수가 없고 한 사당 안에 다 배향할 수가 없는 명현들이나 백세의 시조를 배시(配侍) 없이 독향(獨享)하는 것이 어찌 금일의 일에 있어 하나의 흠이 아니겠습니까.

안동의 비빔밥 만드는 과정 소개(Hello TV)



△서울 Hello TV촬영팀이 안동일원에서 비빔밥 만들고 시식하는 정면을 촬영하였다. 원배:조선행 부회장이 나눔을 담고 있다.

안동권씨부호장공파(安東權氏副戶長公派) 부녀회 조선행(曹先杏) 회장이 시어머니로부터 전수받은 비빔밥 만드는 전 과정을 유선방송인 서울 Hello TV 촬영팀이 현지에 와서 촬영을 하였다. 7월 5일 오전 10시 촬영 팀은 조희장 집에서 그 누가 시어머니로부터 전수받은 비빔밥 만드는 전 과정을 2시간에 걸쳐서 촬영한 후 또 마무리 촬영을 위해서 부호장공파와 정자인 일원정(一源正)에서 1시간 동안 촬영을 하였다. 이날 일원정에서 촬영한 것을 보면 찹쌀에 쌀과 개똥, 인동조, 토마토 등의 각종 재료를 넣어 발표시킨 막걸리를 거르는 과정과 12가지의 나물을 늦그릇에 담은 장면을 촬영하였다.

장마를 맞아 비오는 날에 일원정 마루에서 비빔밥과 곁들여 향 내음이 나는 막걸리를 마신 권병균 회장과 임원들은 "막걸리가 원액이라서 약간 독하긴 하지만 향긋한 내용과 입에 짹짹 붙는 감칠맛이 아주 좋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오는 하반기에 안동권씨 전국과중회장 회의를 일원정

에서 개최하는 것을 대종원에 건의하여 이 비빔밥의 맛을 회장들에게 선보이겠다"며 기대를 걸고 있다. 보통 비빔밥은 나물을 볶아서 만들지만 그 누가 만드는 비빔밥은 각종 나물을 한 솥에 넣어 푹 끓여 만들기 때문에 나물이 부드러워 먹기가 쉽고 소화도 잘 되는 것이 장점이다.

이 촬영 팀은 <한국의 품격, 의, 식, 주>라는 제목의 3부작으로 만들어 오는 10월 전국에 60분 간 방영할 계획인데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발전기금으로 이 프로젝트를 제작하고 있다고 하였다. 촬영 팀은 의(衣) 부문은 안동포(布), 천연염색, 규방공예를, 식(食) 부문은 안동 비빔밥, 송어알로 만드는 영암 어란, 영주 오정주를, 주(住) 부문은 전주 경기장, 안동 고택을 촬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보도부장 권영진)

서울산악회 산행 안내(제226차)

- 일 시 : 2013년 8월 18일(오전 8시 40분)
- 집결장소 : 3·6호선 불광역 7번출구 서부시외버스터미널
- 등 산 지 : 감악산

- ▲회장(권영석) : 011-207-6549, 02453-6549 ▲사무국장(경탁) : 010-3796-4047, 02963-5222
- ▲등반대장(오준) : 011-718-4204, (오익) : 011-205-6134
- ※준비물 : 간식, 물, 산행 필수장비, 물걸
- ※산행시 개인행동을 삼가시고 단체 행동을 해주십시오.
- ※개인 행동시 안전사고가 날 수 있으며 사고시 각자 책임입니다.

※ 서울산악회 카페주소는 <http://cafe.daum.net/ankwonsmm>입니다.

2013년 8월 1일
안동권씨서울산악회 회장 권영석

산업용 잉크젯 프린터 국내 제조

에이치아이테크

대표이사 권성률
(39. 인천 추밀공파제간공계. 35년)
C.P 010-7325-7556

인천 연수구 송도동 214번지 송도스마트밸리 지식산업센터 B동 1019호
Tel : 070-8780-7556
Fax : 032- 572-9996
E-mail : navy9994@naver.com
<http://www.HolyInks.com>